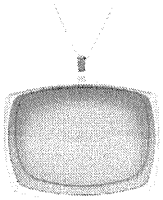

학생부문 우수작

스튜디오가 너무 뜨거우면 시청자는 차가워진다

SBS <강심장> 비평

황인찬

"어제 OOO 봤어? 진짜 웃기지?"

오늘도 친구들은 전날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며 아침 인사를 나눈다. 나는 원래 TV를 잘 보지 않고 연예인들의 일상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점점 친구들의 대화에서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스포츠 신문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연예가 중계>에서 본 것도 아니었다. 바로 SBS의 <강심장>이라는 '동시다발적 토크쇼'를 보고 쏟아낸 것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통 토크쇼를 표방한 SBS의 <박중훈쇼>가 처참하게 막을 내린 후 시작된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시청자 중에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 내용을 모르면 친구들과의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중에서 <강심장>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

다. <강심장>의 MC는 한국 최고의 MC라고 할 수 있는 강호동과 이미 가수와 연기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승기 콤비로, 가히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1박 2일>(KBS2)에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에게 해당 프로그램 멤버들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 <강심장>에 대한 기대는 컸다.

진화를 거듭한 토크쇼의 종착역?

그것은 강호동이 강한 이미지라면 이승기는 부드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 매주 바뀌는 새롭고 다양한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스트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강심장>의 토크 형식은 2008년에 종영한 토크쇼 <야심만만>(SBS)과 매우 흡사하다. 스타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담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늦은 밤에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다른 점으로는 <야심만만>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해 대규모 설문 조사를 하고 스타들이 그것을 알아맞히는 퀴즈 코너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강심장>은 큰 주제 안에서 각자 자유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심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다수의 게스트 출연 방식은 2005년에 막을 내린 <브레인 서바이버>(MBC)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후에는 학생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KBS2)을 연예 프로그램 영역으로 바꾼 <스타 골든벨>(KBS2)과 <스타킹>(SBS) 등에서 드물게 등장했다. 이렇게 친근하고도 새로운 토크쇼인

<강심장>은 시작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열흘 만에 시청률이 20%에 근접하면서 예능계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강심장>의 시청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심장>을 사랑하고 첫회부터 지켜봐온 애청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다. 도대체 어떠한 요인들이 <강심장>을 쇠퇴의 길로 이끄는 것일까?

경쟁 사회와 닮은 스튜디오

먼저 <강심장>의 특징 중 하나인 20여 명 정도 되는 다수의 게스트 출연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매주 바뀌는 다수의 게스트들은 새로움도 주었지만 정신없고 산만한 느낌도 주었다. 많은 게스트가 출연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다른 토크쇼와 비슷하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없는 때가 많고 인기가 좋고 잘나가는 스타가 출연하면 그 스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게스트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만다. 심한 경우를 들면 가수 '비'가 출연한 27회와 28회에서는 비가 중심이 되어 많은 게스트들이 이른바 '병풍 게스트'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인기 스타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청률을 올리는 데에는 더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게스트에게 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앉아 있는, 때로는 졸기도 하는 병풍 게스트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의 냉혹함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제한된 방송 시간 내에 한 번이라도 더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서 경쟁하는 게스트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고 대학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성적 경쟁 중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참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소외된 병풍 게스트들은 반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연상시켰다. 10대와 20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사회의 냉정한 모습이나 학교에서 지겹도록 보아온 경쟁의식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게스트들의 수를 과감히 줄여서 이왕 나온 김에 급하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고, 고정 게스트들의 비율을 늘려서 새로운 게스트들이 와도 어수선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의 좋은 예로는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MBC)를 들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는 게스트들 중에서 고정 게스트들의 비율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고정 게스트들이 새로 출연한 게스트가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게스트가 많아서 생기는 산만한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 다수의 게스트가 출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좋은 예이다. 게다가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는 연예계 아줌마들의 숨겨진 모습들을 재발견하고 최근의 예능 트렌드와도 접목시켜서 시대를 초월한 예능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무작위로 두 명씩 짝을 지어 상황극을 연출하는 모습은 왠지 모를 어설픔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고 신선한 웃음을 주었다. 한때 욕을 일삼고 여성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았던 김구라가 이경실, 박미선 같은 누나들 사이에서 착한 MC로 거듭난 것도 큰 소득이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퀴즈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년의 스타'로서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MC들이 임예진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기본적인 예의와 사적인 친밀감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친목회' 같은 분위기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깨방정'으로 유명해진 조권처럼 젊은 연예인도 오히려 자신의 캐릭터를 잘 살리며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강심장>도 게스트들끼리 너무 경쟁하듯이 난립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분위기로 갈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심장>이 점점 이야기보다는 춤과 퍼포먼스 위주의 방송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도 독이 될 수 있다. 회가 거듭할수록 게스트들의 춤이나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게스트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심장>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게스트들의 솔직하고도 담백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얻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스타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편안한 시청 분위기를 유도했던 데에 있다. 하나의 예로 커밍아웃을 선언해서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아온 홍석천은 <강심장>에 출연해 자신이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분투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동성애자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 홍석천이 아니라 인간 홍석천이 느껴진 순간이었고 그의 새로운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강심장> 26회에 출연했던 하춘화 역시 그렇다. 사실 <강심장>에 나오기 전까지 나는 하춘화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게스트들과 대화하는 것과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춘화를 다시 아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시대의 차이를 넘어서 학생들과 원로 가수를 연결시켜 준 것은 춤도 아니고 퍼포먼스도

아니었다. 얼마 전 인기 댄스그룹 슈퍼주니어의 일부 멤버들도 춤이 아닌 진솔한 이야기로 호평을 받았다. 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신동의 결혼 발표이다. 신동은 알려질 만큼 알려진 자신의 열애 이야기와 일부 오해에 대해 "이곳에서 발표하기 위해 침묵했다"라며 말을 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이돌 스타로서 부모님의 반대와 예비 신부의 거절에 힘들어했던 사연을 스포츠 신문의 '취중 토크'나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동료 연예인들이 편하게 모여 이야기를 쏟아내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아직 어설프지만 지켜봐 달라"며 프러포즈하는 모습은 이 가수를 싫어하거나 그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혹은 나처럼 결혼 이야기는 잘 와 닿지 않는 연령대의 시청자에게도 코끝이 찡할 만큼의 감동을 주었다.

물론 춤이나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춤과 퍼포먼스 또한 <강심장>의 매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 방송에서 토크쇼가 자리 잡기 어려워 보인다 해도 기본적으로 토크쇼를 표방하는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스토리텔링이고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선정적인 광고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게스트들의 문구가 점점 선정적이고 상업성을 띠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강심장>은 밤 11시경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은 <강심장>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는 한다. 10대, 20대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강심장>을 시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 가족도 자주는 아니지만 나와 동생이 <강심장>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도 어느새 같이

시청하신다. 게스트 앞에 놓인 보드에는 게스트가 할 이야기의 제목이 간단하게 써 있는데 그것을 통해 게스트가 하려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나를 비롯한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강심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쟁 속에서 이야기의 내용과 문구가 시청자의 궁금증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강심장>의 주 시청자는 10대, 20대로 학생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가족과 함께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부모님과 함께 보다가 야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면 정말 민망하다. '바람난 여자', 'OO의 동거녀' 등과 같이 자극적인 제목이 넘쳐난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이야기를 듣고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었거나 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나가는 것들이지만 시청자들까지 강(한)심장을 가지고 놀란 가슴을 쓰다듬어야 되겠는가.

선정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상업성이다. <강심장>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의 목적이 금전적인 데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강심장>에 얼굴을 비친 황혜영이 있다. 황혜영은 1990년대를 주름잡았던 혼성 그룹 '투투'의 여성 멤버로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다. 이 날 황혜영은 과거에 자신이 당시 최고의 스타와 연인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속 시원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단박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슈가 되었고,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식으로 며칠간 검색어를 '사유화'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녀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실린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통해 그녀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알게 되었다. 황혜영이 <강심장>을 다녀간 이유가 뭘까? 자신의 얼굴을 알려서 쇼핑몰을 활성화시키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것은 정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업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는 상업성을 띤 게스트들의 출연은 반갑지 않다. <강심장>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이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기대해본다

예능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고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경쟁의 속성이 공동의 목표 추구라는 데에서 드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다. 연예인들이 파편화된 자기 이야기에 급급하지 말고 더 좋은 분위기와 멋진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소외당하는 병풍 게스트들을 보면서 그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자거나 다른 것을 하는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들도 내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이름부터 너무 강호동에게 기댄 듯한 <강심장>에서, <스타킹>에서와 똑같이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보조 MC 이승기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젊은 연예인들이 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으면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솔함을 보여줄 때 <강심장>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애청자로서 <강심장>이 대한민국 토크쇼 역사에 큰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본다.